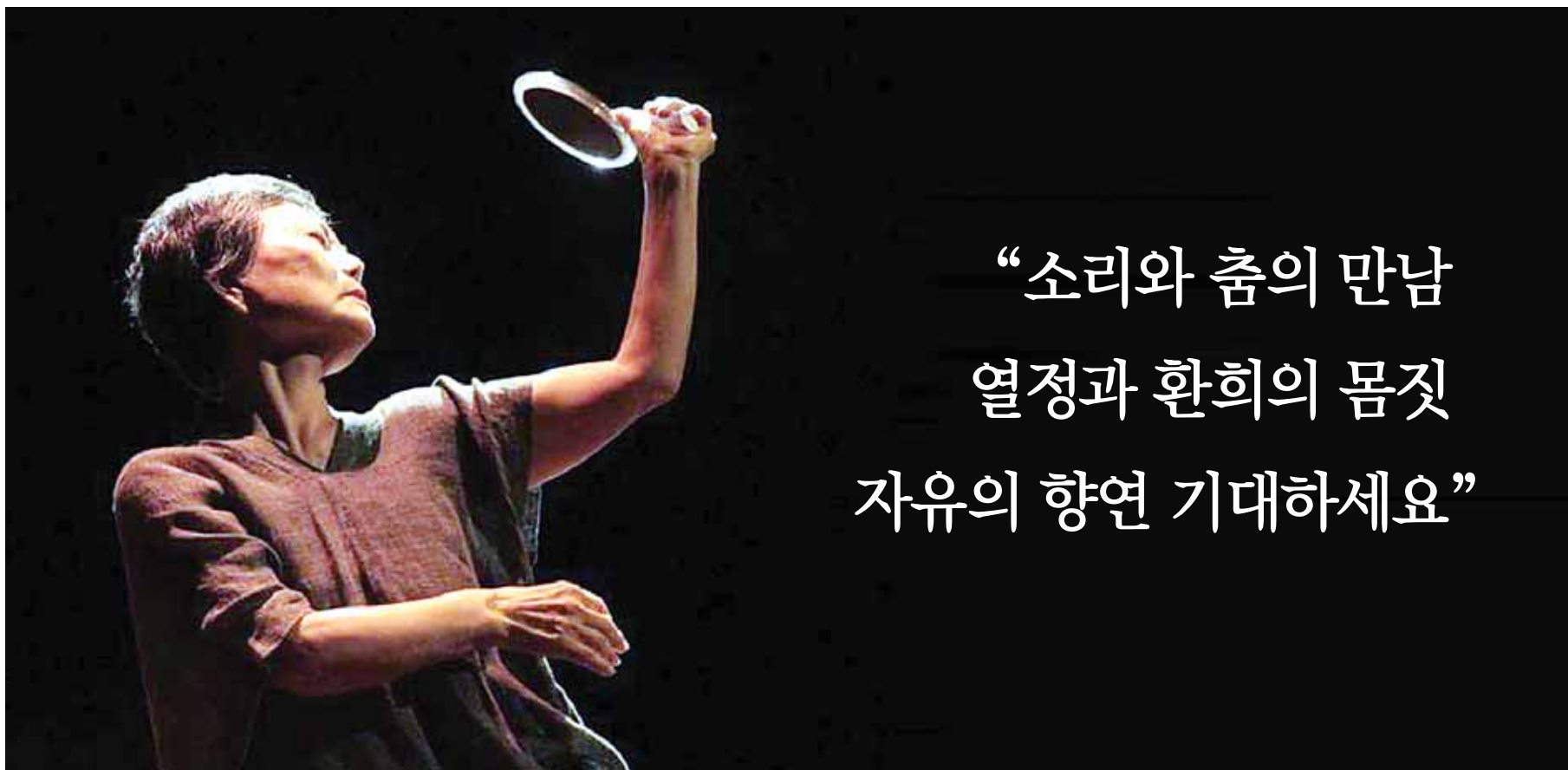




“소리와 춤의 만남 열정과 환희의 몸짓 자유의 향연 기대하세요”

광주 공연 갖는 ‘구도의 춤꾼’ 홍신자

제1세대 전위예술 아티스트

백남준·존 케이지·라즈니쉬와 교류

3년전부터 담양서 텃밭 가꾸며 거주

“80 앞둔 요즘이 내 인생의 완숙기”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료 공연



담양군 대덕면의 한 주택. 홍신자(78)씨는 3년 전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게 마을 안쪽, 명상하기 좋은 곳에 터를 잡았다. 미국, 인도 등지에서 수년씩 머물기도 한 그녀에게 이 집은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지난 2010년 독일 출신의 한국학자 베르너 샷레와 부부의 연을 맺은 홍씨는 “항상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한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 햇살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에도 창을 많이 만들었고, 남편과 함께 텃밭도 직접 가꾼다”고 말했다.

홍신자는 제1세대 전위예술 아티스트로 세계무용사를 이끈 18인 중 유일한 아시아인이다. 안무가이자 무용가, 명상가, 보컬리스트로 끝없는 변신을 이어왔으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알원 니콜라이의 현대무용을 보고 내면에서 폭발적인 변화를 느꼈어요. 제가 29살 때였죠. 한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고민했어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느라 방황하던 중 그 무대를 봤는데 ‘춤을 춰야겠다’는 욕구를 느꼈어요. 무대 위에서 그 순간을 위해 열정적으로 존재하는 걸 보고 ‘나도 저걸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낀 거죠. 그 때부터 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보장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과감하게 열정 하나로 시작했죠.”

그녀는 숙명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26살 때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무용을 시작, 33살에 데뷔를 한 후 20년 이상 뉴욕에서 활동하며 존 케이지, 백남준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했다.

“처음 무용학원을 찾아가는데 제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몸이 굳은 대로 굳은 나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현대무용은 어려서부터 연마해야 하는 춤이 아니어서 늦게 시작해도 큰 상관 없었어요. 제가 춤을 시작한 것은 타고난 소질과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는 호텔매니지먼트를 공부했지만 저한테 맞지 않았어요. 결국, 30살이 넘어 현대무용으로 데뷔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춤을 추는 시간이

저에게는 살아있는 순간이었고 춤을 추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흔을 앞두고 구도의 길을 찾아 몇 년간 인도로 떠나 작가 ‘라즈니쉬’의 제자가 됐고, 자유롭고도 파격적인 구도의 춤꾼으로 살아오고 있다.

또, 인도 여정을 담은 ‘자유를 위한 변명’이란 저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광주에서 공연을 펼친다.

“사실 담양에 살면서 꼭 광주에서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가깝지만 방문할 기회가 안생기더라고요. 지난 여름에는 유럽공연, 9월 초에는 일본공연 또 제주도 전주 등에서 공연을 했지만 광주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잘 모르는 젊은층에는 저를 알리는 기회가 될 테고 팬들에게는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번 공연은 소리와 춤을 함께 선보이며 자유로운 환희를 표현하는 이색적인 공연이라 저도 기대가 됩니다.”

‘홍신자의 소리와 춤-아리아리아리요’는 1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인생의 가장 원숙한 경지에 올라 진정한 자유와 춤의 의미를 깨달은 영원한 구도자로서 걸림돌 없는 자유의 향연을 펼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홍씨는 “‘아하하하(소리)’, ‘가든(춤)’, ‘하리오(소리)’, ‘아리아리아리요(소리)’ 등의 무대를 준비했다”며 “‘광주’하면 굴복하지 않고 항상 파이팅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존재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항상 투쟁하는 느낌이 든다. 이번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공연 ‘외침’은 광주 5·18민주화운동과도 연관성이 있어 광주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모레면 80살입니다. 원숙해졌죠. 과일이 무르익어가면 무르익어가는 맛이 있듯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르익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고 공연을 하면서 전혀 힘이 안 든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숨이 다 할 때까지 꾸준히 춤을 추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을 때도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았다, 어떤 후회도 없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전석 무료. 문의 062-670-7931.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예맥회’ 20주년 기념전

광주예고

한국화와 모임

내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조양희 작 ‘아경-기다림’

광주예고 한국화와 출신들의 모임인 ‘예맥회’(회장 조양희)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선배 회원들은 광주시미술대전, 전남도 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종견 작가 회원들은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고, 모임에 참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청년작가들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찾기 위해 몰두해 왔다.

‘예맥 청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

관에서 열고 있는 이번 그룹전은 초심을 되새기며 또 다른 도약을 꿈꾸는 전시회로 금남로분관의 초대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강일호, 이건우, 고영정, 이구용, 김대욱, 이수빈, 김여진, 이수형, 정해영, 박홍수씨 등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 46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정통 한국화부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실험적인 작품까지 만날 수 있으며 풍경, 인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등 다채로운 주제로 작업했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기자 mekim@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24일까지 접수



▶지난해 공모전 최우수상 ‘초록하늘’.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24일까지 ‘제10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사진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그 날, 그 곳, 그 순간의 이야기’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색다른 볼거리, 여행 중 만난 친구, 특별한 경험 등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누구든지 나이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접수가 끝나면 입상작들은 모두 시민

전시공간인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 에 전시될 예정이다. 사진은 최우수 1점 등 총 26점을 선정한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오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선보이는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초대권과 상품권, CGV영화 관람권 등이 주어진다. 작품은 개인당 5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디지털 이미지(JPG, JPEG)형식의 파일만 제출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1. /전문기자 ej662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신양파크호텔

가을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한가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